

경기도

서울대와 '축산위생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축산위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도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설을 앞두고 이뤄진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 등 야생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질병을 함께 연구하는 한편 수정란 이식을 활용한 형질전환 복제 돼지 생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동물 질병 연구를 통한 생명공학 기술 축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키로

제천시는 최근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특별 구매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연 1%의 저금리로 3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사육가축 종류 및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농·축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 사료자금 지원 대상 농가는 제천시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 제외 대상 농가는 사료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금을 신청한 90여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 약정 후 세금계산서 등 사료구매실적 증빙자

료에 의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따라서 3월중 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을 사육하는 농가의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 한 후 3월중 농·축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축산사료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1년 거치 2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조사료 확보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축산업 기반조성에 1,345억원 투입

경상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 아젠다(DDA) 등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5개 분야 69개 사업에 총 1,345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열린 2009년 축산사업 시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가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기반조성사업에 63억원, 축산경영안정 기반 확충에 408억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및 청보리 재배 확대를 통한 조사료 생산 이용 극대화 등에 45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등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품질 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273억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등 가축방역 체계구축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



축전염병 재발 방지 등 소·돼지·닭 등의 주요 가축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발생시 긴급대응을 위한 가축질병 발생신고 전용전화(1588-4060) 운용 등도 밝혔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은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응,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한우 생산과 차별화 전략을 위해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의 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하동군, 녹차이용 양계농가 AI 예방

하동군이 녹차를 활용한 산란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AI 전염예방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의 AI 전염예방 시범사업은 녹차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9N2형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지난해 3월 연세대학교 성백린 박사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관내 7만5천수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시범군과 대조군을 관찰한 후 생산물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방법은 녹차 부산물을 배합사료에 혼합(닭 1,000수당/200g)하여 매일 달걀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해 5월 양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시가 발생해 49농가 139만4천마리가 살처분 매몰되는 등 피해액만도 88억원에 이르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군 관계자는 "AI 전염예방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양계농가는 피해를 입지 않고 아울러 녹차생산농가는 생산성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실용 재래닭 병아리 분양

통영시 농업기술센터가 토종닭의 순수혈통을 개량한 실용 재래닭 병아리를 농가에 분양,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전망이다.

센터는 지난 2월 4일 재래닭 종란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확보해 일정기간 동안 부화 후 약 1개월 동안 어린 병아리를 키워 희망하는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용 재래닭은 알을 잘 생산하고 성장속도가 빠른 토종닭을 교배해 탄생된 실용 닭으로 기존 토종닭의 고기 맛을 유지하면서 성장속도가 토종닭에 비해 2배 이상(기존 토종닭 식용 사육기간 : 7~8개월, 실용재래 닭 식용 사육기간 : 3~4개월) 월등히 빠르고 질병에도 강하도록 개량된 품종이다.

통영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농업개발시설 부화실에서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간 부화시켜 부화당일 각종 질병예방 접종을 마치고 30여 일간 어린 병아리를 키우는 육추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0일경에 마리당 2,000원의 가격으로 희망농가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분양할 실용 재래 병아리는 기존 시중 병아리 가격보다 500~600원 싸게 약 3,000마리 정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과(생활자원담당 ☎ 054-650-6311~6315)로 문의하면 된다.



### 경상북도

#### 영주시,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사업 추진

영주시는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육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자연과 조화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사업은 시·군 단위에서는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으며 소는 3년간, 돼지·닭은 2년간 주기적인 질병 및 축산물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없는 농장에 대해 청정농장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도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소 30두, 돼지 1,000두, 닭 1만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참고로 지난해는 94개소 130개 농장을 가축질병 청정 예비농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사육환경과 관리상태가 우수한 가축질병 청정농장에 대해 친환경목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영주축산물의 청정 이미지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

#### 저병원성 AI 잇따라 발생

전남 순천과 곡성, 보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18일 순천 별량과 곡성

삼기, 보성읍 지역 토종닭 농장 3곳의 가검물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시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은 모두 토종닭만을 사육하는 곳이며 현재 별다른 폐사징후는 없으나 가검물에서 저병원성 시 항체가 확인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이들 농장 3곳의 토종닭 2만2천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시와는 달리 저병원성 시는 감염되면 사료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호흡기성 질환이 나타나지만 특이 증상은 없으며 전염성이 낮고 폐사 등의 피해도 거의 없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12월 철새 도래지인 함평군 대동저수지의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시가 확인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함평과 나주, 보성의 시장에 있던 오리 분변에서도 저병원성 시 항체가 발견됐고 이에 앞서 10월에는 장성군 동화면, 함평군 월야면과 나산면의 오리농장에서도 저병원성 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내 저병원성 시 발생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2007년 8건, 2006년 0건에 비해 급증함에 따라 도는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저병원성 시 항체가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가금류와 생산물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시가 번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저병원성 시는 그동안 살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강력한 예방조치로 살처분하기로 했다”며 “발병이 의심스러운 닭, 오리를 발견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축사 친환경 소독시설 '오존수'로 녹색축산 실현

전라남도가 올해 '녹색축산' 추진 2차년도를 맞아 기존 소독제 대신 오존수를 활용해 음수 및 축사 소독을 할 수 있는 '축사 친환경 소독시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축사 친환경 소독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8천200만원을 확보해 오존수를 이용한 음수 및 축사 소독시설 23대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오존수를 이용한 음수 및 축사 소독시설은 전남도가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1억7천만원을 들여 5개 농장에 보급을 완료했다.

오존수는 염소의 6~7배 살균력을 갖는 기체상태의 오존과 물이 혼합돼 만들어진 것으로 살균 탈취성이 강하고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후 산소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잔류하지 않는 친환경 소독제다.

특히 그 동안 사용해왔던 소독방법과는 달리 소독제에 대한 내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질병 예방 효과도 탁월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자는 돼지 1천마리 이상, 닭·오리 1만마리 이상 사육농가 중 HACCP을 지정받은 농가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선한다.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축산 확대와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고 가축의 건강과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축산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

터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은 1월 현재 965건으로 전국 2천645건의 37%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인증 3천농가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소독 시설사업과 동물복지, 축사시설 개선, 축산환경 개선 등 총 17개 사업에 총 808억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고성군, '생명환경축사' 준공

지난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명환경농업'으로 벼농사 풍년을 이룬 경남 고성군이 올해는 축산업에도 생명환경농업을 접목한다.

고성군은 지난 2월 3일 고성읍 덕선리 생명환경 농업연구소에서 생명환경축사 준공식을 갖고 한우 3마리와 돼지 10마리, 토종닭 500마리를 입식했다.

1억4천600만원이 들어간 축사시설(508㎡)은 전국 곳곳의 자연농업 축사시설을 벤치마킹한 뒤 가축의 입장에서 최상의 환경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햇볕이 축사에 고르게 비춰지고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해 악취가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

바닥을 콘트리트로 하는 대신 축사별로 톱밥과 왕겨, 버섯폐목, 대나무, 황토 등 가축 특성에 따라 30~80cm까지 바닥에 자연재료를 깔고 토착미생물을 살포했다.

또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퇴비로 이용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에 이용해 자연순환이 되도록 했다.

가축별로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녹즙, 생선아미노산, 미네랄 등을 사료에 넣어 먹이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고성군은 올해 이런 방법으로 1만여마리의 가축을 키우기로 하고 생명환경농업축사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학렬 고성군수는 “가축이 자연생태에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좋은 축산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

#### 저병원성 AI 발생

전라남도에도 이어 전북에서도 저병원성(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장의 닭 6만여마리가 긴급 살처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8일 전남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AI 항체 검출과 관련, 최근 군산과 익산 등 2개 지역 8개 농장 970수의 닭을 검사한 결과 AI H5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월 21일 밝혔다.

익산지역에서는 1만수, 군산에서는 4만2천수가 각각 H5형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2월 초 각각 전남지역의 농가로 토종닭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이날 3개 농가 6만천수의 닭을 긴급 살처분하고 매몰했다.

이번에 검출된 H5 항체는 감염력이 있는 AI 바이러스가 아닌 닭의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생성된 면역 항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

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한편 이번 살처분과 함께 토종닭 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하고 AI 상시 방역체계를 재검점, 고병원성 AI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서귀포시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3일 친환경 축산물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 장려금과 계란 도외 반출 물류비 등 모두 7천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하장려금 및 계란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은 농가로 지원액은 한우 1두당 10만원(등급 1C이상), 돼지 1두당 1만원(등급 2B이상), 닭·오리 1수당 100원, 계란 1개당 10원 등이다.

현재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비롯해 민간기관 2곳 등 모두 3개소가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돼지 4곳, 육계 8곳, 산란계 3곳 등 총 15 곳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욕 고취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